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2. 6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**英, 가석방된 테러 범죄자 집중 감시 추진**
  - 12.1 英 경찰은 런던브리지 테러범과 함께 가석방 되었던 동료 「나잠」을 테러준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, 「존슨」 英 총리는 유사테러를 막기 위해 가석방된 테러 범죄자 74명을 면밀 모니터링 하겠다고 언급
    - \* 런던브리지 테러범은 증권거래소에 파이프폭탄 설치 모의 혐의로 복역하다 '18.12 전자발찌 착용조건으로 조기 가석방
- **유럽, 지하디스트 수감자 출소에 테러 공포 확산**
  - 12.1 CNN은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199명 중 올해 45명을 포함해 '23년까지 113명의 출소가 예정됨에 따라 유럽내 '런던브리지 테러'와 유사한 사건 증가 우려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
    - \* 전문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수감 중 더 급진화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

#### 미주

- **멕시코 마약 카르텔, 경찰과 총격전으로 테러단체 지정 논란 가열**
  - 12.1 AP통신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예고(11.26)한 상황에서 관련 조직원 60여명이 비야우니온 시청사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감행(사망 21), 미국의 동 조직 테러단체 지정계획에 논란이 가열될 것이라고 보도
    - \* 미국이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경우 멕시코 내정간섭 및 군사개입 가능
- **美, 모든 출입국자 '얼굴 촬영' 의무화 추진**
  - 12.2 로이터통신은 美 국토부가 여행증명서 위조나 범죄자·테러리스트가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모든 출입국자 (美 시민 포함)의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호주, '16년 멜버른 도심 폭탄테러 모의범 징역형 선고

- 11.28 호주 빅토리아 고등법원은 '16년 크리스마스 기간 중 멜버른의 주요 번화가에서 폭탄조끼와 총기 등을 이용해 테러 공격을 계획하다 검거된 ISIS 추종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
  - \* 범인들(2명 38년형, 1명 22년형)은 ISIS의 선전 영상을 접하고 급진화됨

## 중 동

### ○ 이스라엘, 서안(West Bank) 헤브론에 새 정착촌 건설

- 12.1 AFP통신은 「나프탈리 베네트」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서안 남부 헤브론에 새 유대인 정착촌 건설 승인을 발표하였으며, 팔레스타인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
  - \*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나, 11.18 미국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발표

### ○ 시리아, 이дли브에서 정부군-반군間 교전으로 69명 사망

- 12.1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반군의 마지막 거점으로 남아있는 북서부 이дли브 지역에서 11.30부터 이틀 동안 정부군과 반군 간에 교전이 발생, 69명이 사망(정부군 36, 반군 33)했다고 발표
  - \* '18.9 러시아의 중재로 터키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, 이дли브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'하야트 타흐리르 알삼'(HTS)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휴전 체제 붕괴

## 아 프 리 카

### ○ ISIS, 말리 프랑스군 헬기 추락사고 배후 자처

- 11.28 AP통신은 말리에서 프랑스군 헬기가 대테러작전 수행 도중 다른 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고(13명 사망)에 대해 ISIS는 자신들과 교전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배후를 자처하고 있다고 보도
  - \* 사헬 대테러 작전 사망자(41명) 증가로 프랑스내에서는 말리 철군 여론 확산

인도네시아 파푸아주, 건설노동자 집단 피살

- '18.12.1 인도네시아 뉴기니섬 서쪽 파푸아주 은두가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분리주의 무장반군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건설노동자 31명 사망
  - 파푸아주는 '61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이후 '69년 UN후원 아래 진행된 주민투표로 인도네시아에 합병
    - \* 파푸아 원주민들은 정부가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며 강경 독립 투쟁 표명
- 테러 직후, 자유파푸아운동(OPM) 산하 무장단체인 서파푸아해방군(TPNPB)은 인니 정부에 독립이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협상 요구
  - 「조코위」 대통령은 비인간적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전원 체포 지시
- 분리주의 단체들은 피살된 근로자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“게릴라식 공격으로 반정부 시위와 분리주의 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”이라고 강조

< 자유파푸아운동(Organisasi Papua Merdeka) >

- (목 표) 인도네시아 뉴기니의 분리, 독립국가 건설
- (결성시기) 네덜란드령 뉴기니섬의 인도네시아 귀속에 반발하여 결성된 분리주의 무장단체('63년 결성)
- (연계세력) 필리핀 신인민군(NPA), 인도네시아 말루쿠 분리주의자 등
- (조직규모) 200여명
- (활동수법)印尼 군·경 등 공권력과 외국계 자원개발기업의 시설·노동자를 주로 공격
- (주요활동) ① '01.1 파푸아주 코린도社 습격, 우리직원 3명, 현지인 13명 납치 및 억류  
 ② '11.10 파푸아주 프리포트社 차량에 총격으로 6명 사상  
 ③ '12.1 파푸아주 물리아 공항에서 민간 항공기에 총격으로 5명 사상